

충현

1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위 영 환
주 간/신 성 중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5가 36
27-9937 · 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5년 1월 26일 발행
통권 제13호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김 창 인 목사
<본교회 당회장>

□...우리가 작년보다 나아지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를 받지 않으면 나아질 수가 없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아지지 못한...□
□...다는 말은 못해진다는 것이고, 못해진다는 것은 멸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

사람마다 가치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전정 값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선 자기의 신분을 알고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 값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책임을 알고 그 책임에 충성하는 사람이 값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처한 시대를 알고 조심하고 준비하며 힘있게 일하는 사람을 가리켜 값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저와 여러분이 1975년도에는 작년보다 값이 나아지는 신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나아지는 값이 있는 신자가 되겠습니까?

첫째로, 이 시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정치, 경제, 사상면에서 혼란하고 불안스럽고 공포에 쌓인 1974년도를 보내고 1975년도를 맞이하지만 하나도 안정된 것이 없습니다. 에너지 파동, 물가고, 식량난 또한 전쟁준비로 지구는 불안과 공포의 혼란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무 통장난 방조작 위에서 서로 떨어져 그리워하는 민족이며 또한 우리는 식량도 7월밖에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천국 백성의 위치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알고 지키면서 악마의 앞잡이 노릇을 꿈에도 하지 맙시다.

세째로, 자신의 부족을 알고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혼자 내버려 두면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고 험해져 갑니다. 분명히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험해지고 악해질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아질 수가 없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아지지 못한다는 말은 못해진다는 것이 되고 못해진다는 말은 멸망이라는 말의 시작이 되니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보다 나아지는 방법은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 함께 해 주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평안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일을 인도하시면 나는 틀림없이 성공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 나는 모자랄 것이 없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삽시다. 남은 생애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법, 예수님을 모시고 지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남은 바 은혜를 감사합니다.

둘째로,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내어놓고 회개해야겠습니다.

세째로, 내 모든 사정을 다 내어놓읍시다.

네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합니다.

다섯째로, 내 힘이 약한 줄 알고 기도로 삽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75년을 맞이했습니다. 더욱 무서워지고 악해지고 어려워질 이때에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는 작년보다 나아지고 예수님을 못 모시면 작년보다 못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금년의 나날은 매일매일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소망이 꽃이 피어 금년말에는 우리의 생활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아와 부모 가 함께 배우는

정 소 영 전도사

75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는 교육에 대해서 또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오래 전부터 구상하여 오던 영아부(嬰兒部)가 탄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심고 가꾸어 천국 일군을 바로 키우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는 무한한 영광이라 하겠다.

보통 교육심리학에서 볼 때에 각 개인의 인격형성은 5세 이전에 거의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이런 면을 생각할 때 어린생명인 영아들의 교육지도와 환경조성 및 신앙지도의 중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영아부의 지도를 맡으며 영아부에 대해 몇가지 소개와 계획을 전하고자 한다.

목 적

영아부신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아들의 영적 성장에 있고 그밖의 지능개발, 정서교육, 인격형성, 신체발육 등을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아들의 영육간의 성장을 위하여 그 어머니들의 교육도 중요집회를 통하여 아울러 실시함으로 더욱 효과적이며 유기적인 영아들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육내용

1. 영아교육의 기본내용

가. 믿음을 키운다[신앙교육]

가장 주요한 교육내용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종교교육에 있다. 믿음을 생(生)의 기본적 요소요 인격형성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역점에 두고 지도한다.

나. 지능을 개발시킨다[지능개발]

여러가지 교육자료를 통하여 지능을 개발함으로써 사물의 판단과 사고력을 발전시키는 기초과정에 대한 훈련을 시킨다.

다. 정서교육을 시킨다.

음악, 미술, 문화, 교우(交友) 등을 통하여 개성과 취미를 조화시켜 아름다운 마음씨로 자라게 한다.

라. 인격성장을 도모한다[인격형성교육]

인격형성의 중요한 영아기를 통하여 신앙인격을 바탕으로 한 인간성을 형성시키는 기초교육을 한다.

마. 신체의 발육을 지도한다.

놀이, 무용등을 통하여 서로간의 신체적 균형발육을 꾀한다.

2. 어머니교육의 내용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문제들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지도

나. 자녀들의 심리적 신체적 올바른 지도

다. 자녀들의 지능, 언어, 사고발달의 올바른 지도

라. 자녀들의 정서교육의 올바른 지도

마. 자녀들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올바른 지도

바. 자녀들의 영양관리, 임상의학(臨床醫學)에 관한 올바른 지도.

영아들은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성경을 직접 말로써 가르치는 것보다는 성경의 진리를 교사들이나 부모, 주위의 사람들의 생활이나 태도, 말 등에서 느끼게 하고 무의식 중에 경험하게 지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므로 학부 모듈의 훌륭한 생활지도가 자녀들의 교육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싶다. 즉 영아부는 영아와 부모가 함께 배우는 곳이다.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2:23) 하신 말씀을 항상 되새기며 영아들을 돌볼 때, 그래서 그들이 자라 우리교회의 각 부서에서 진한 청지기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우리교회가 목표하는 「천국일군을 키우자」라는 책임을 온전히 수행한 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 마지막으로 빠진 말을 한마디 보충하고 싶다. 아이 없는 신혼부인이나 미혼처녀들도 대환영한다. 오셔서 많은 유익 있기를 바란다.

영아부활동시간

1. 주일예배(매주일 오전 9~10시)

1부순서; 예배

2부순서; 제반생활지도

2. 목요집회(매주목요일 오전 10~12시)

영아교육;

자유놀이—무용, 노래(찬송), 게임 등

그룹(group)지도—시청과교제, 교구.

어머니교육;

특강 및 슬라이드, 영화

◇ 해외선교



우리 교회는 일본선교사가 나

홍 중 만 목사
<일본선교사>

우리 총회교회는 정말 풍족한 은혜를 받고있는 교회이다. 지금까지 크게 발전한 교회이고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고 또 발전할 가능성도 크게 지니고 있다. 다만 주시는 바 풍성한 은혜물을 조심스럽게 감당해야겠다. 70년대에 들어 서면서 우리 교회는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다. 새로운 기구들이 확장되고 기존 기구들이 정비되어가고 청소년들의 왕성한 진도열, 해외복음선교의 착수 등으로 계속 발전되어간다. 우리 교회는 1975년도에 선교사업에 역점을 두기위해 거교회적인 선교활동을 전개하면서 일본 선교에까지 손을 뻗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를 받는 교회에서 은혜를 나누어 주는 교회로 나서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오묘하다.

하나님께서서는 해외 선교에는 생각도 않고 있는 저를 불러주셨다. 처음엔 주춤할 수 밖에 없었다. 묵묵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었다. 그 후 가능한한 일본의 사정을 알아봤다. 선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는 중에 교회의 확장, 총회의 선교사

인준, 일본으로부터의 초청....., 일은 의외로 빨리 진전되었다. 인간의 생각이란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 내 생애의 과거의 의미가 새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오묘한 뜻을 희미하게 알게 되기 시작했다. 나는 못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것이다. 인제인가 이미 마음에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우리가 풍문에 듣고있는 대로 일본 교회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에 얽여있음을 알고 있다. 민족적으로 받는 차별대우, 우리 민족간의 사상적 대립, 문명의 뒷골목에서 잘못 걷고 있는 젊은 교포 2세들의 생태 등은 현재와 또 앞날에 적지 않은 문제이다. 우리가 아는데로 북한과 공산세력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들 교포에 대한 지원은 심히 미약하다. 예를 들면 민단계의 교육기관은 3개의 국민학교와 4개의 중학교와 4개의 고등학교에 불과하지만 조총련계는 92개의 국민학교와 54개

일본의 한국인을 위한 교회총수는 46개이고

목사가 31명인데

교인은 어린이까지 합해서 3,396명이니

우리교회의 절반에 불과하다

의 중학교와 11개의 고등학교와 대학까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이들에 대한 복음의 필요성은 너무나 절실하다.

현재 일본에 있는 한국인은 정식 거주자만 60만이고 비공식 거주자까지 합하면 100만이 가까우리라는 것이다. 일본의 한국인을 위한 교회 총수는 46개적이고 목사가 31명인데 교인은 어린이까지 합해서 3,396명(74년 통계)이니 우리 교회의 절반에 불과하다.

일차적으로 일본 선교의 본거지가 될 곳은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이다. 며칠 전에 시모노세키 교회에서 온 편지에 의하면 교인은 약 40~50명이 되지만 한국 교회에서와 같은 열심은 기대할 수 없으며 청년들이 교회에서의 봉사도 무관심 상태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시모노세키시의 유일한 한인교회이며 일본 서남지역에서는 교세가 우세하다는 교회라고 한다. 40대 이상이 되는 교포 1세대 중에는 신앙이 건전한 사람들이 있지만 교포 2세대는 여지없이 속화되어 있고 이들은 전통적인 보수신앙을 경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교포 2세대들은 대부분 우리말을 해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위해서는 일본어로 가르쳐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비추볼 때 일본 선교와 신앙적인 전지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민족적인 차원에서 보아도 크게 긴급하고 긴급한 일이다.

일본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선교활동 내용은 현지에 가서야 수립이 되겠지만 현재 대체적으로 생각된 선교 전략은 다음과 같다.

- ① 하판교회 기성 교인들을 전도요원으로 훈련
- ② 하판시내 예배 초소 설치
- ③ 하판시내 불신교포(약 5000명)에게 문서 전도
- ④ 불신교포의 방문 및 초청전도
- ⑤ 타지역에 개척전도
- ⑥ 각종 기관전도
- ⑦ 일본인에 대한 개인전도

복단한 믿음 회복운동

—개혁주의신앙—

여기에 실린 두편의 글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단기수련회의 여러 강의중 김 성환 목사의 「개혁주의신앙」과 김 의환 목사의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제목의 강의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개혁주의 신앙」에 대하여는 수시로 소개되어 왔지만 다시 한번 그 핵심을 쉽게 요약해 보자는 뜻에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하여는 우리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선교사업은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의 중대한 사명이며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기로 약속하셨고 우주의 주재자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는 한 우리의 승리는 너무도 확실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뜻에서 실었다. 아울러 편집자의 요약중 강사의 본래 의도와 달리 표현된 점이 있다면 편집자의 본의는 아님을 밝혀둔다(편집자)

우리는 장로교인이다. 그러나 당신은 왜 장로교인인
 되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
 가? 이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성
 결교나 감리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인가? 구원은 교파
 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되기에 거기에도
 구원은 있다.

그러나 어느편이 더 성경적으로 구원의 교리를 바르
 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느냐고 할 때는 장로교파가 옳
 다. 성결교나 감리교는 자신의 믿음에 자신의 의식적
 인 행위를 더 첨가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후라도
 타락하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장로교는 자신
 의 구원의 동기·과정·완성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
 혜의 결과라고 믿으며 혹 타락한다 할찌라도 징계의
 체계를 드시사 끝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완성시
 키심을 믿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같은 개혁주의(칼빈주의)가 가장
 성서적임을 믿는 장로교인이 된 것이며, 그 특징을 간단
 히 소개하고자 한다.

□ 끊임없이 교회의 개혁을 주장한다

왜 교회의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한가? 이에 대하여
 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처
 음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는 이스라엘에
 이어졌으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
 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상을 섬기는 주위 이방민
 족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점차 이방종교
 로 기울었다.

이같이 계시종교가 가나안 자연종교의 영향으로 뿌
 리로부터 부패하기 시작할 때 엘리야는 바알의 거짓신
 지자들과 가멜산에서 대결하여 승리함으로 부패한신
 앙을 하나님의 말씀위에 바로 세웠다. 이 엘리야의 신
 앙을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후
 히스기야왕과 요시아왕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때 시대
 마다 타락 된 계시종교는 부단한 종교개혁으로 그 방
 향을 바로 잡아왔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끊임 없는 바른 신앙
 에로의 회복운동은 바울 사도에 의해 잘 설명되었고
 이를 이은 어거스틴 이후 중세에 이르러 천주교는 성
 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천지를 이루
 어 다시 종교개혁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바로 이
 때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사람이 루터와 칼빈이었다.
 루터는 천주교의 그릇 된 아성을 무너트렸고 칼빈은

성경적인 대안으로 신앙체계를 확고히 세웠다.

이와같이 당위의 교회는 잘못 될 가능성이 있다. 교
 회체계가 바른 바울 사도가 세운 에베소 교회가 오늘
 날에는 회회교사원으로 변한 것은 역사적인 좋은 증거
 이다. 그러기에 아무리 은혜로운 교역자가 설립했다
 해도 잘못 된 것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알
 고 언제나 말씀으로 개혁,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성경으로 돌아가자

정치도 종교도 타락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시대고
 종교가 타락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인간의
 심장과 같은 종교가 타락되면 모든것이 끝장이기에 말
 씀을 지켜나가는 교회는 최후전선이다. 잘못된 신앙인
 들은 기독교도 시대를 따라 그 시대에 맞도록 변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는 말씀은 영원히 변
 치않기에 성서로 돌아가야 하며 교회가 시대를 본말을
 것이 아니라 시대가 교회를 본말도록 해야 한다고 말
 한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새로운 윤리의 탄생을 말하나
 따지고 보면 이도 시대에 맞는 종교를 만드는 것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시대에 맞는 종교의 창조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루터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중세의 어둠을 물아낸 것처럼 우리에게 드리운
 어둠도 오직 말씀으로만 밝힐 수 있다.

□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

너무도 빨리 변하는 세상을 보고 많은 젊은이와 지
 성인이 신앙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 세상이 변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상에는
 변치않는 것이 있으며 결코 변해서는 안될 것이있다.
 해는 동쪽에서 떠야만 한다. 부부의 사랑은 변치 않는
 것이 옳으며 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변경시킬 수 없는 하
 나님의 말씀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고 지
 커 나가는 것이 보수적 개혁주의요, 칼빈주의다. 끊임
 없이 변하는 구름과 달리 항상 변치 않는 구름위의 태
 양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나 변
 하지 않으심 같이 우리의 신앙도 변치 수 없으며 변해
 서는 않된다.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이 믿음은 변
 함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자 만이 누릴수
 있는 영광이다.

신교자는 역사의 주인공

—교회의 선교적 사명—

승천하시기 직전의 예수님을 뵈고 경배하면서도 의심하였던 사람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이 시대는 불신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현대의 많은 신학자·사상가·문학가들이 하나님 없이도 역사는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며 하나님 대신 인간의 모든 것을 역사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신앙의 이상기류속에 영적인 강한 거부반응을 체험하며 살고 있다.

지난날 인간은 광활하고도 신비스러운 우주세계를 보며 인간의 손이 미칠수 없는 영역으로 보아서 미래를 놓고 신존재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신앞에 손을 모았고 과거를 회상할 수 있었고 현재의 결단을 내릴수 있었지만 우주과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들은 우주를 향한 신비감을 상실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 과학의 힘을 통하여 인간의 미래를 인간의 손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래학이 등장하였다.

인간의 가능성이 이같이 점차 발전됨에 따라 이제는 종교의 영역이 인간의 삶의 한복판에서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가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조차 웃을거리로 알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세기말적인 인간위기속에서 우리는 선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속하려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하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희망적인 명제를 오늘날 지성인들에게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마 28; 18)」는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 자에게만이 가능한 것이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주재하신다는 사실을 주저없이 믿는 자만이 나아가 모든 사람을 가르쳐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선교의 형태·장소·시간은 각각 다를지 모르나 하나님의 이같은 주권선언을 믿는자에게는 복음전파라는 꼭 같은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실증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속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구약을 통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상만을 볼 때는 하박국 선지처럼 이방민족에게 놀리고·찢기고·유린당하는 이스라엘민족에게 하나님은 과연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민족이 이같은 수난을 당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닌가라는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역사적 현상을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이스라엘을 이스

라엘 되게 하시어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써 진정한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요 이방인의 역사는 물러리요, 도구요, 일종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이방선교의 중추자였던 바울의 선교활동을 보자. 그가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한후 인간으로서의 건지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중에도 항상 이방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죽음에 직면한 순간에도 보물을 받은자로서의 선교적사명에 충성을 다함으로 끝내는 로마 황제 가이사알에서 복음을 외쳐 전파함으로 역사를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러한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선교적 사명에 충실하려는 성도들이 이땅에 있는 한은 세상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나약하고 보잘것 없는 자처럼 보이며, 인간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경시키려 해도 끝내는 역사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야 말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주신 역사의 주인공답게 선령의 능력을 힘입고 가능한 모든것을 동원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죄악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여야 할 것이다.

중현 만평



너희는 가라 그리고 보내라

선교의 주일 제정

□...1968년 6월 30일과 7월 14일에 계속된 당회는 아주 중요한 결정...□
 □...을 내렸다. ...□
 □...설립 10주년을 맞아 「천국 일군을 키우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천...□
 □...국일군 양성에 온힘을 집중해 오던 교회는 설립 15주년을 맞아...□
 □...또다시 새로운 발돋움과 함께 우리교회에 있어서 잊지 못할 중요...□
 □...한 해가 된 것이다. ...□
 □...우리교회가 늘 생각하며 기도하여 오던 바로써 그간 시기적으로...□
 □...교회의 여건이 여의치 않아 실현하지 못하고 있던차에 1968년 온...□
 □...교우들의 해외선교에 대한 간구의 기도가 이루어진 해였다. ...□

지금까지의 경과

당회는 1968년 교회설립 15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가칭 「해외복음선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해 8월에 「물질문명의 침단을 향해 달리고 있는 세계는 그들의 영원한 행복과 지상낙원을 꿈꾸며 쾌락의 자장가를 부르고 있으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의 마음은 오늘날 여전히 불안과 절망의 길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교회는 주님의 저상 명령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 의식치 않습니다」라는 창설 취지문을 채택하고 창립총회를 위한 준비와 회원모집에 박차를 가하였던 것이다.

1. 창립총회—1968년 11월 24일 오후 3시

2개월에 가입된 80여명의 회원들을 창립회원으로 1968년 11월 24일 오후 3시 2층 대예배당에서 「해외복음선교회」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초대회장에 김광철장로, 부회장에 위영환장로, 이옥순권사, 서기 최석주장로, 회계 이창준집사의 임원들이 선출됐다.

또한 조천일목사를 초대선교사로 추대함으로써 해외복음전도 사업과 지도자양성 및 선교정신의 배양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선교회」의 문은 열리게 된 것이다.

2. 초대 선교사—조천일목사

선립후 첫해를 맞은 1969년 2월

에 들어 서면서 회원배가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2월 2일 주일 낮예배 시간에는 조천일목사 선교사 추대식이 거행되었다. 다음해인 1970년 1월에는 초대 선교사 조천일목사가 세계대학생선교회의 참석과 선교지 시찰차 3개월정도 예정으로 미국에 갔으나 개인적인 학문연구 관계로 미국에 계속 머물게 됨에 따라 9월에는 우리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3. 2대선교사—인도네시아로

이러한 계획상의 차질에도 불구하고 「해외복음선교회」는 처음 미주에 선교지 교두보확보의 뜻을 바꾸어 동남아 선교를 위하여 연구기도 하던중 70년 9월 6일에 선교지를 인도네시아로 정하고 화란 개혁선교회 선교사로 총회에서 임명한 서만수목사를 파송선교사로 허락하고 우리교회에서 약 6개월간의 훈련을 받은후 1971년 9월 9일 서만수 선교사 내외는 선교지 인도네시아로 은교우의 뜨거운 전송을 받으며 떠났으니 이는 실로 「해외복음선교회」를 창설한 지 만 2년 10개월만의 일이었다.

4. 선교사 후보생선택

현지 사업규모의 광대함과 중요성이 인정되어 당회는 이종영목사(당시 전도사, 총회 신학연구원 재학)를 선교사 후보생으로 선정하여 1973년 4월부터 우리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역대회장으로는 김광철장로가 창립이래 현재까지 계속 역임하고있



으며 창립당시 80명의 회원은 불과 7년 사이에 약 배가 늘어난 75년 1월 현재 900여명에 이르고 있다.

5. 홍종만목사-일본선교사로

이와같이 해외선교에 대한 열이 고조되고 인도네시아로부터 날아오는 선교소식은 우리 온 교회에 더욱 선교에 박차를 가하기에 충분했다.

74년 8월 당회는 그동안 우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수고하시던 홍종만목사님을 제3대 선교사로 지명, 총회의 인준을 얻고 일본에 파송키로 결의했다.

60만 재일 동포들의 선교사로 애쓰실 홍목사님은 그 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3월경 출국하실 예정이다.

1975년도 선교회 사업계획

지난해 제59회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우리교회 당회장 김창인목사님은 총회 선교부장으로서 피선됨으로 우리교회는 내외로 선교에 대한 커다란 책임을 다시한번 느끼게 했다. 1968년에 창립되어 많은 어려움을 속에서도 무난히 그 임무를 수행해 온 해외복음선교회도 금년들어 더욱 박차를 가해 온교회에 선교의 열을 고취, 보다 적극적이고 활력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9일에 개최된 제6차 총회에서 결의된 75년도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선교주일제정
2. 선교부총회(75년 3월중)
3. 선교옹변대회(75년 8월중 전교회)
4. 선교발표회
5. 회원 증모(1,500명목표)
6. 주교 작부 선교회조직
7. 일본선교사 파송(75년 3월중)
8. 선교사 서한 회원에게 전달(매월)
9. 땅끝까지회 조직
10. 선교보고(「충현」지를 통하여)
11. 책꽂이(카드)제작 배부
12. 선교사 후보 훈련

선교의 주일 제정 실시

우리 교회는 1975년도 중점사업의 하나로 선교를 정하고 이 선교사업에 대하여 전교인들에게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와 우리교회의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선교사명을 자각하도록 하여 이를 온 교인이 실천하게끔 하기 위한 목적에 1월 3째 주일을 「선교의 주일」로 실시키로 결정하였다.

1월 19일 「선교의 주일」을 맞아 온교회는 선교의 분위기와 열도로 충만한 가운데 「선교의 주일」행사를 가졌다.

모든 예배(대예배, 작부주교) 및 집회에서 선교의 주제를 선교에 관련된 것으로 실시했으며 또한 성경책이나 기타 책갈피에 끼워 놓고 볼 수 있는 책꽂이를 온 교인에게 배부하여 선교사업의 중요성과 그를 볼 때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성가대의 모든 찬양을 공통된 곡으로 선택케하고 또한 주보와 함께 선교활동 헌신장정서를 전교인에게 배부하여

새로운 선교회원의 입회와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명감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 주간에 실시된 선교행사는 다음과 같다.

1. 땅끝까지회 창립

선교의 주일을 계기로 선교사양성, 선교사업지원, 선교학연구등의 목적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고자 하거나 선교사업에 헌신봉사하고자 하는 사람, 선교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 선교적사명을 띄고 외국에 나간 사람들 등을 대상으로 「땅끝까지회」가 조직됐다.

지난 1월 16일오후 6시 30분 창립총회를 가진 「땅끝까지회」는 75년도의 사업계획과 아울러 초대임원진에 회장: 임태주, 서기: 안석렬, 회계: 홍인숙을 선출했고 사업계획으로 매월 4째주일에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회를 갖고 선교자료수집(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와 일본) 및 선교사와의 서신, 문서연락관계를 담당키로 했다.

앞으로 이 「땅끝까지회」는 해외복음선교회의 실질적인 행정업무 및 해외 파송 선교사의 양성이 크게 기대되고있다.

2. 오후 특별집회

- 가. 대학부, 청년부연합 선교특강
강사: 손봉호박사
제목: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위치
- 나. 중등부, 고등부 연합 선교특강
강사: 홍종만목사
제목: 너희는 가라 그리고 보내라
- 다. 유, 초등부 연합선교예배
강사: 이연호 전도사
제목: 너희는 가라

3. 예배 및 집회

- 가. 영아부: 정조영전도사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창 1:11)
- 나. 새신자부: 정기성목사
지혜있는 중(마 24:44,45)
- 다. 유치부: 정연희전도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요 1:)
- 라. 유년부: 이승근전도사
복음에 밧진 자(골 1:14)
- 마. 초등부: 김태현전도사
생명줄 던지어라(잠 24:11)
- 바. 중등부: 이연호전도사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19-23)
- 사. 고등부: 정관일목사
지상교회의 과제는(겔 3:17-19)
- 아. 대학부: 신성종강도사
복음 밀수꾼(딤후 4:14)
- 자. 청년부: 정상우목사
복음을 땅끝까지(행 1:6-8)

이 외에도 주일학교 각 편려회에 선교부를 조직하는 일과 저녁예배에 선교를 위한 특별예배등으로 「선교의 주일」행사가 실시 됐다. 이는 교인 모두가 선교의 대열에 동참하고자하는데 큰 뜻이 있는 것이며 이런 기회에 어린이까지도 모두가 선교에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해외복음선교에 실효를 거둘수 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형>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참 석 자 : 백성룡 목사, 정기성 목사, 조현명 장로, 김창배 장로,
지금산 집사, 김정일 선생, 손동운 집사, 정홍식 집사,
안운진 원사, 구명선 집사, 배옥인 집사,
「충현」지 : 위영환 장로(사회), 조선근 집사, 정은표 집사, 이형수
선생, 황복순 기자, 조선희 기자, 여향구 기자.

□...1974년도에 이어 두번째인 1975년 단기수련회가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 : 19-20)는 말씀을 주제로 지난 1월 3일부터 11일까지 연 8일간 실시되었다.□
□...이번 수련회의 참가자 수는 모두 3,493명(1일평균 436명)에 총소요경비가 25만원 이었...□
□...며 모두 21명의 강사(대내 4명, 대외 17명)가 초청되어 28개 과목을 강의하였다. 또한 6...□
□...일부터 8일까지 3일은 마지막 시간에 성도 전체를 위한 부흥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한 결과를 돌아보고 1976년을 위한 참고자료를 남기자는 뜻에서 「충현」지에서는...□
□...지난 13일 이번 수련회에 참가하셨던 12분을 부문별로 초청하여 좌담회를 열었다. 여기에...□
□...실린 글은 이날 이야기된 내용을 간추려 실린 것이다. <편집자>.....□

□ 단기수련회의 의미(意味)

1963년 「천국일꾼을 키우자」는 목표설정, 1969년 최초의 「교사학교」, 1972년 「지도자양성부」개설 등 우리 교회의 단계적인 발전과정의 흐름을 따라 1974년부터 시작 된 「단기수련회」는 평신도로부터 교역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피교육자로 돌아가 각각의 위치에서 성도 본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각기 맡은 바 임무수행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익히려는 반복적인 재교육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인 전도·교육·구제 활동을 보다 충실히 감당하기 위한 말씀과 기능의 제무장의 기회라는 단기수련회의 목적이 있었다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연륜의 탓인지는 몰라도 1975년의 단기수련회는 전 일보한 점도 없지 않으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 이러한 점은 좋았다.

1974년에는 19일이나 되었던 수련회 일정을 금년에는 8일로 단축하였다. 그 결과 단기의 효과를 충분히 살림으로 동원에 있어 보다 용이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경비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수련회를 통하여 교인 전체가 다시 한번 국내의 선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보다 구체적인 선교방법이 논의되었다는 것은 1975년 단기수련회의 특징이며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부 강사의 체험적인 강의에 많은 교사들이 크게 감명을 받게 되었으며 이같은 대규모적인 교회행사가 실현됨으로 세상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었고, 진행에 있어 불과 몇명의 실무진에 의해 무사히 끝마쳤다는 것도 기억되어야 하리라 본다.

□ 충분히 생각했어야 할 몇가지

1. 필요성만을 강조하는데 머물지 말고 실제 활동에 연결될 수 있는 좀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이다.
2. 신앙훈련과 각자의 직임(기능)훈련에 있어 신앙훈련은 뜨겁게, 직임훈련은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전문적인 교육이 되도록 강의내용을 편성하고 이에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는 일이다.
3. 시간적 제약이 크게 따르는 단기수련회의 약점을 보충하고 피교육자 스스로가 계속적인 훈련을 쌓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재를 준비하는 일이다.
4. 몇천명을 동원해야만 하는 이번 수련회의 실제적인 진행은 단 몇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단일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나 보다 조직적인 운영과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일이다.
5. 사전준비 과정에 있어 진행계획과 함께 사후 성과측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다.



◇ 교역자 수련회 모습 ◇

□ 다음 수련회를 위한 제안(提案)

1. 목표설정/앞으로 5~10년의 장기적인 수련회 방향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해마다 단계적이고 체계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 구체화하여 가능한한 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강의내용/해마다 중복되는 것을 피해야 될 것은 물론 수강자에 대한 사전조사와 대화를 통해 우리교회의 실정에 알맞고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선택한다.

또한 기능적인 훈련에는 가능한 한 전문가가 담당토록 하며 신앙훈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3. 감사초청/강의내용 분야에 조예가 깊어 우리가 원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지 사전 조사로 감사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감사로 하여금 연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교섭한다. 또한 불발적인 사유로 결강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해 둔다.

4. 교재발행/강사로 하여금 교안을 사전에 제출토록 하여 교육위원회와 당회의 검토를 받은 후 책자로 발행하여 수강자에게 배부하며 차후 참고자료로 보존한다.

5. 강의시간/매 강의시간마다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가급적 짧게 한다.

6. 출석권장/적당한 과석배치로 참석자에 대한 출석률 부를 수 있도록 하며 결석자에 대한 출석률 적극 권한다. 또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에 수강신청서를 받도록 하고 마친 후에는 수료증을 준다.

7. 진행/가급적 수련회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모든 업무를 분담토록 하며 진행담당자를 수련회별로 둔다.

8. 내용채택/강의중 실천가능성이 있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은 행정적인 제계를 밟아 해당 부서에서 제안하여 실천하도록 한다.

9. 후집회/후집회를 통하여 받은 바 말씀을 실행에 옮길것을 결심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한다.

10. 계획착수/다음 수련회의 사업계획을 적어도 6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하며 개발적인 계획서는 전기 수련회 평가 결과를 참고로 평가 직후 작성하여 놓도록 한다.

□ 맺는 말

우리교회의 발전과정에 따르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수련회의 성과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밖에 없다.

겸손하게 배우며 가르치겠다는 이러한 자세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조국과 아시아의 복음화라는 총현의 사명을 조속히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1975년도 단기수련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립니다.

컬럼

후방 기지(基地)의 강화

정 은 표

21년 전만 하여도 우리교회는 교인수 18명에 전평이 14명에 불과한 초라한 천막교회였지만 지금은 교인수 5,500여명에 전평이 770여명에 달하는 큰 교회로 부흥되었다.

6·25전후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천막교회 신세를 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교인수는 물론 교회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있다하면 교회」라는 말이 한때의 유행어로 나물만큼 교회수는 늘었지만, 교인수에 비하여 불 때 시설물의 실제 수이나 기능면에서 과연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성도의 교육과 교제에 적합한 교회수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지 몹시도 의심스럽다.

어느면에서 볼 때 이는 교인수의 증가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기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급진적으로 변화하며 다양화해 가는 사회 속에서 승리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키운다는 문제가 전적으로 교회의 시설이나 그 규모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중의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약점이기도 한 이러한 현상에 우리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면 우리교회도 한국교회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할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시설면에 있어서라도 우선 한국인의 이같은 비능률적이고 소규모적인 습성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서양인들은 사방을 볼 수 있는 언덕에 집을 지었지만 우리네 조상들은 삼면을 산으로 가리우고 남쪽만 볼 수 있도록 집을 지어 왔다. 지리적 조건과 기후조건이 이러한 생활양식을 결정하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 우리의 안목이 한쪽면 밖에 볼 수 없는 근시안적이고 편협적인 것으로 굳어버렸는지도 모른다.

6년 전 우리는 장소가 비좁아 더 이상 예배다운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크게 걱정하여 새로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굳게 결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같지 않다. 이는 환경의 제약이 가해지면 처음에는 이에 맞서보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에 동화되어 수동적인 자세로 그대로 환경에 젖어버리는 우리민족의 약점을 또 다시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국외신교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모를 힘을 기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체계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이대로 대외 선교전(戰)에 임한다면 이는 마치 보급기와 신명훈련기지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채 적과 싸우기 위해 출병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십자가 정병—그건 나

조 현 명 장로

<유치부 부장>

월남전, 중동상태의 악화와 경제 불안 그리고 피부에 느껴진 경제불황과 사회 불신불만이 커져, 삶의 빈곤으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개인의 책임을 다하기 힘든 때가 이르렀으며, 하나님 없이 신학이 난무하여 선교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힘써 일하며, 70인의 전도 보고를 주님께서 기뻐하신 도를 전파함에 힘써야 할 것을 느꼈다.

그리고 신 성종 박사는 일제기 저항명령인 복음을 세계에 수출한 것과 우리 총현이 현재의 안디옥이 될 것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현방안도 제시해 주셨고, 기도대장경 문호 목사는 복음전파의 중추적 역할을 총현교회가 복음선교 센터가 되어 담당할 것을 기도하시며 결론을 얻으셨다고 하심에 대하여 우리들의 책임이 더욱 커짐을 느꼈다.

또 우리들은 나단이 다윗에게 양의 비유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책망들은 것을 거울삼아 총현의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화하는 표어 「그건 나 (It's me.)」 밑에서 십자가 정병의 개병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을 느꼈다.

수련회는 주교 교사 및 권찰로서 필요한 지도능력, 성경지식 및 교회봉사, 구역운영 등의 재교육도 되고 새로운 부(部)가 설치됨에 따라 지도기술을 터득하기 위한 교육도 되고, 그리고 새로이 임명받은 분들에게는 더욱 좋은 훈련이 되리라 믿어 수련회는 매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훌륭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통하여 교회봉사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성 책임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할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

76년도 수련회에 다음과 같은 요망사항을 제시한다.

1. 교재준비

교과목에 따라 교재작성이 가능한 것은 교재를 작성하기 바란다. 강의시간이 짧아 할말을 못다한 강의중단을 보충도 될 수 있다.

2. 연구조사

외국 주교의 각부 운영방식을 연구 조사하여 주무부(主務部)운영에 도움을 주며, 명년도 수련회에도 반영시키기 바란다.

끝으로 금번 수련회를 통하여 좋은 점은 모두가 받아들여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 (1) 가정에서 가족끼리 성경읽기

(2) 본문 30번 읽기.

교사수련회 첫날 주교부 총책 과목의 강사 김 진택 목사는 설교전 본문을 40번을 읽는다고 하셨다

회개와 감동과 결심

안 윤 진 전사

<청년부 부감>

끊임없는 역사의 수레바퀴속에서 우리는 75년도에도 신한 청지기로 바로 봉사하며 천국일군을 바로 키우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정병으로 훈련받는 일이 가장 긴급하고 귀한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단기수련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제무장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사수련회 첫날 첫시간 김진택 목사님의 강의(본문 6장 34절)에서 성경을 기초로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가 부흥되고, 중생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어린성명들을 불쌍히 여기며 참목자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시며 시내 모교회 주일학교 여교사가 맹장염으로 입원자료중 그는 자기 몸을 위하기보다 어린양들이 근심되고 보고 싶어서 3일만에 교회로 뛰어나온 것을 본 많은

교사들은 그의 사랑과 사명감의 철저함에 감동을 받아 그후부터 큰부흥이 일어 났다는 말씀에 감동받고 깊은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둘째날 임옥인교수 시간이 또 한 감동적이었습니다. 인생은 고락간이나 일의 대소간에 느끼는 것은 가슴아픈 일들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 아파서 자리에 누워있을때 부모가 대신 아파 주지는 못하고 가슴아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가슴이 아프셔서 예수님을 보내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빛진 자들로서 내위치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임교수는 신앙간증을 통하여 그가 중생한 후부터는 행복한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고 망자지대, 망각인생들을 위해 살려고 결심하고 나병환자,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소년원에 가서는 22

세 미만의 불쌍한 심령들을 위하여 명제 해야 되나 무엇을 주어야 하나 하며, 자기의 피를 뿌려서 어린것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산다면 그대로 주고 바치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는 그 강한 사랑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기뻐교도 곧 사랑의 종교, 희생의 종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3, 권찰수련회 둘째날 권사들은 유년부실에 모여 백성목사님의 말씀(본문 5장 12-14절)을 통하여 권사의 위치와 직무에 대하여 권사는 신앙년조가 되고 성숙한 신자로서 여러가지 환난속에서 자라야 환난당한 자들을 안위해 주며 권위해 주고 약한자를 붙들어 주고 병든자를 말씀으로 치료해 주며 인간의 존엄성을 바로 알아 사랑으로 바로 키워주는 후기 권사가 나오도록 믿음과 사랑으로 봉사의 회수가 많은 존귀한 권사가 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금번 수련회기간에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바로 신용하기를 결심하는 바입니다.

성 경 통 신 강 좌

— 교 리 공 부 —

〔제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미 6:8; 요 5:39; 20:31; 고전 16:11; 롬 15:4; 요일 1:3-4)

〔설명〕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만 한 신성을 계시하였으나 죄로 어두워진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떻게 그를 믿어야 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 1) 다음의 글은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인데 세 대답중에서 옳은 것 하나에 ○표를 하고 나머지 두 답이 왜 틀린지 설명하십시오.

1.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2.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성경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3.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며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여진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 2) 다음에 있는 여섯 개의 성경구절을 가지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성경 없이도 사람이 자신을 바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2.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교훈과 사귄 수가 있습니까? (세 성경구절)
3. 사람에게서 생애가 앞섭니까? 아니면 행동이 앞섭니까?
4. 예수님은 성경을 유일한 신앙규범으로 믿었습니까?

〈성경구절〉 ① 렘 10:23, ② 마 7:17, ③ 행 23:23, ④ 시 119:73, ⑤ 마 26:54-56 ⑥ 행 17:11

(문제 3) 다음 문장을 완전하게 만드시오.

1. 하나님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 하십니다(창 50:20)
2.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신 6:6-7)
3. 모든 사람은 다 □□입니다(시 53:3)
4. 우리는 다 우리의 죄를 □□해야 합니다(시 51:3)

5.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원수들로부터 □□하십니다(스 8:22)
6. 우리는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야 합니다(스 6:18)
7. 하나님은 죄인들을 □□하십니다(암 2:4)
8. 우리의 모든 재물은 다 □□□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와 □□을 도적질 해서는 안됩니다(말 3:8)
9.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했습니다(마 16:21)
10.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해야 합니다(마 6:33)
11. 그리스도는 교회의 □□입니다(엡 1:22)
12. 성령 예배만 우리의 □□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롬 12:1)

〔제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요 4:24; 말 3:6; 약 1:7; 왕상 8:27; 창 17:1; 계 19:6; 사 57:15; 요 17:11; 계 4:8; 신 32:4; 시 100:5; 롬 2:4; 출 34:63; 시 117:2; 출 3:14; 시 145:3

〔설명〕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① 영이시며 ② 한계나 제약이 없으시며 ③ 영원하신 분이시며 ④ 변함이 없으시며 ⑤ 그의 지혜는 완전하시며 ⑥ 전능하시고 ⑦ 거룩하시며 ⑧ 공의로 우시고 ⑨ 선하시며 ⑩ 진실하신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문제 1) 위에 기록된 하나님의 열가지 성품에 관계되는 성경구절을 하나씩 찾아서 기록해 보시오. (위의 성경구절을 참조할 것)

(문제 2)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세와 이사야와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1. 모세(출 3:5)
2. 이사야(사 6:5)
3. 베드로(눅 5:8)

(문제 3) 다음 묻는 말에 답하십시오.

1.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죄도 질 수 있습니까? 없다면 왜?
2.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 15페이지 「교회뉴스」 우측 계속

1975년도 단기 수련회

8일간 연 3,493명 참석코

75년도를 훈면으로 시작하며 새롭게 그리스도의 정병과 그리스도의 증인을 다짐하는 단기수련회가 지난 1월 3일, 교역자 및 직원수련회를 필두로 4일에 임원수련회, 6~8일에 교사수련회, 성가부수련회, 평신도 수련회 또한 9~11일의 제직 및 권찰수련회로 연 6일동안 3,493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금번의 수련회는 지난해의 1개월여의 지리하게 시행된 수련회의 단

점을 보완하여 단기로 실시한 점이 특색이었다.

강사와 프로그램의 선정문제, 교재문제, 시간의 문제들이 있었지만 분산된 힘을 함께 모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6~8일의 교사, 성가부, 평신도수련회에서는 매일 마지막시간에 정문호목사와 김의환목사의 부흥회가 있었다.

특별권찰회—14일

지난 1월 14일 75년도 특별 권찰회가 모였다.

이날 회에서는 1년동안 수고한 권찰동의 노고를 치하하며 75년도의 구역행정 및 심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이날 회에서는 개근 및 정근한 권찰들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75년도 예산총액 9천 4백여만원

1974년도 결산서와 1975년도 예산서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지난 1월 5일 2, 3부 예배시 모여졌다.

1974년도 81,930,705원의 결산서와 75년도 94,107,458원에 대한 예산안을 수정없이 심의 통과했는데 75년도의 총예산액 94,107,458원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제비 17.5%, 전도비 8.8%
총교교육비 20.1% 성가비 2.9%
성경학원 3.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수련회 좌담회

지난 1월 3~11일까지 열린 단기수련회에 대한 반성 및 그 평가를 위한 좌담회가 「충현」지 주최로 지난 1월 13일(월) 오후 7시부터 대학부실에서 모였다.

위원장장로님(「충현」지 편집위원장)의 사회로 백성통목사님의 말씀이 있는 후 좌담회로 들어간 이날의 회의는 각부분별 참석한 사람들의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속에서 3시간여에 걸쳐서 진행됐다.

보다 큰 발전과 단기수련회의 성과를 위해서 교재의 작성과 우리교회 신정에 맞는 프로그램과 강사선정,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18명이 참석하였다.

영아부 개회예배

—1월 5일, 100여명이—

금년들어 신설, 11부주일학교의 막내로 등장한 영아부는 지난 1월 5일, 아기 60명 어머니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예배를 드렸다.

시설의 미비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 영아부는 주일날 외에 목요일에도 모이는데 집회일자와 강사는 다음과 같다.

집회 : 매주일 아침
9—10시 예배와
생활지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공부(영아·유치부 합동)
내용 : ① 어린이와 어머니(자유놀이)
② 어머니 교육(복강)
강사 : 성경—윤영탁 전도사(본교회)
육아지도법—이원영 교수
(이화여대)



제일성가대 총회

—총무에 이훈 집사—

제일성가대는 75년도 정기총회를 12월 29일에 열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한편 75년도의 사업을 계획 결의했다.

총무 : 이훈, 협동총무 : 이희상
남서기 : 윤만철, 여서기 : 고재은
회계 : 신계운, 관리부장 : 김은조
봉사부장 : 김숙연, 섭외부장 : 신병모

또한 75년도의 사업으로는

1. 10월중 성가음악의 밤 개최
2. 자체수련을 위해 매주 3부에 배후 성가연습전에 성경공부를 하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 성가연습후 음악감상회, 하기수양회를 이용한 음악이론 공부 등을 계획했다.

또한 75년 1월 2일에는 신임대원 헌영회 및 전대원 친목회를 은환표 집사택에서 가졌다.

제 5 회 동기 수양회

—대학부, 27~31일—

대학부는 제 5 회 동기 수양회를 9월 27~30일(4일간), 본교회당에서 갖는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를 주제로 열리는 금번 수양회의 주강사는 대학부 지도 신성중강도사, 그외에 임옥인교수, **홍성주** 목사 등 다수의 외래강사를 모시고 「신앙과 학문」 「신앙과 직업」 「신앙과 결혼」 등에 관한 강의도 들을 예정이다.

또한 23일에는 일학년단을 위한 수련회가 경기도 과천시에서 열렸다.

어린이 성경학교

—1월 20~23일까지—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렸다.

일평균 110여명의 교사와 800여명의 어린이가 모인 금번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는 금년으로 12번째인데 이번에 주제는 「믿음과 생활」(야고브서)이었다.

수도CE 순회예배

수도CE순회예배가 지난 1월 19일 저녁예배시 본교회당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CE일원들의 특순과 수도CE에서 총현CE로 주는 기념품증정의 시간도 있었다.

이날의 말씀은 신성중 강도사의 「복음선교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

—교우 소식(1월)—

■ 등록 ■

김명실(금호구역)
이옥녀(필동 1구역)
박금진(한남구역)
홍상유(장충 1구역)
김청수(삼선구역)
조원행(중곡구역)
박상경, 최명옥, 조성행(광희구역)
최명조(흑석구역)

■ 결혼 ■

권학승군과 정은희양(1월 24일)

■ 별세 ■

안전복집사(12월 31일)
유정순(1월 9일)
선재선(1월 14일)



□13페이지 「성경통신강좌」 계속
3.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 하나만 예로 든다면?

(문제 4) 다음 성경구절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답하십시오.

1. 대상 28:9; 시 7:9; 44:21
2. 신 33:27; 삼하22:3; 시편 9:9
3. 시 106:21; 사 43:3, 11; 45:15
4. 창 18:25; 신 32:36; 롬 2:16; 계 11:18
5. 신 5:26; 수 3:10
6. 신 10:17; 딤후 6:15; 계17:14
7. 약 1:17
8. 딤후 6:15; 계 17:14
9. 마 11:25; 28:19; 막 14:36; 롬 6:4; 8:15
10. 사 11:2; 요 14:26; 16:13; 고전 12:8
11. 딤후 3:16; 뱌후 1:21
12. 행 13:2,4; 20:28
13. 행 16:6-7
14. 요 14:17; 고전 6:19
15. 롬 15:16; 겔37:28

—학생모집—

충현성경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1. 구 분

학습반(40명)—성경전과목(월, 화, 수) 자격 제한없음.

연구반(40명)—성경전과목 및 헬라, 히브리, 영어, 강독(월, 금토) 교졸이상.

2. 원서제출—2월초

3. 개 강 일—2월중순

4. 기 타—입학금 1,000원

등록금 2,000원

교재비 1,000원

기타 자세한 것은 성경학원 사무실에 문의할것.

1975. 1.

충현성경학원

※※※ 답안지는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답안지에도 답을 써서 이 번호의 답안은 성경 학원으로 2월말 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답안용지가 더 필요할 경우는 성경학원 사무실로 오십시오.

◆ 기자 모집 ◆

「충현」지를 위하여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할 「충현」지 기자 약간명을 모집합니다.

우리교회 교인으로 세례를 받고 교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남녀 구별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가 있습니다.

응모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사무실의 이 태규 장로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해 세달에 「충현」 13호를 낼수 있어 기쁘다. 항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라지만 우리네— 지난 호보다는 「더 잘」이기에—잘 되겠지. 현대, 이번 겨울은 왜 이리 작박할까? 정말로 어둡고 냉정한 땅덩이구나. 더구나 우리안에 사랑이 식어 가고 있다. 그러던 차 주일학교 11부중 대학부가 「사랑의 대학부」라는 표어를 삼은 것도 고마운 일이다.

또 새해부터 「충현」이 매월 발행이라니 목은 소식들이 나오진 않겠지. 한해가 강중강중 뛰어가 버릴까봐 겁난다. <구>

○...민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다. 은혜로 받은 단란트를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하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속에 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감사하다. 이제 추운 겨울 밤에 한강씩 원고를 정리하며 한 가지로 비는 마음은 이 작은 일이라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게 하소서..... <영>

○...새해는 밝아왔다. 이제 지난 해의 남고 슬픈 전망과 괴로움이 깃들었던 쓰라린 모든 일들을 날려 보내야겠다. 그리고 또한번 올해에 기대를 걸어 봐야겠다.

○...요즘 「충현」지의 독자수가 늘어 가고 있다. 자상하신 배려까지 곁들여 주신 분들도 있다. 반가운 현상이다. 우리 모두다 관심을 가짐으로써

충현 식구들이 숨결을 지면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올해에는 부디 「충현」지에 투고하는 식구들까지 많아져서 더욱 더 발전되어 나아가는 우리 「충현」지를 기대해 봅시다. <순>

○...1975년 단기수련회 좌담회에서 C장로님 말씀이, 우리교회는 「이렇게 합시다」라는 말만 크게 외쳐놓고 「이렇게 했읍니다」라는 말은 용무사미적으로 흐려버리는 좋지 않은 습성이 있는데, 이를 즉각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고 열면 올성.

○...말보다 실천이 천배나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천만번 읊은 말뿐인 것을 어찌합니까? 「웁소!」라고 박수를 크게 쳐조(말씀중이라 마음속으로).

○...일만 하지 말고 좀 쉬라고 공휴일 아닌 공휴일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탄생」은 흥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부활」은 흥내낼 수 없을 걸? 그 사람 하늘에 올라가 봐야지. 이미 2511년전에 죽어서 흙이 되어 흔적도 없는데니 “무덤을 만든 날도 공휴일로 합시다”라는 말을 차마 못하게지...

○...주일학교 사무실에 말만 하고 말을 듣지 못하는 반 먹통진화가 두대. 듣기만 하고 입은 병긋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실 테고.....

○...그럴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 그러실때지만 「어찌합니까?」 어린 생명들을 말고있는 교사들을 봐서라도 한대만이라도 입을 열게 해 주옵소서... <표>

편집하고 나서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우리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한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한 것이며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가능성을 땅속에 묻어만 둔다면 결국은 그것마저 더 남긴 자를 위하여 우리에게 개서 기두어 가실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의 결과에 대해 변명할 여지조차 없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우리교회의 끝없는 저력에 감탄하며 부러워하지만, 더 많은 자는 마땅히 더 많은 것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이번 수련회가 이 나라와 아시아 민족을 위하여 더 큰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할 관문임을 깨닫고 현상에서 무작정 기뻐만 하거나 만족에 젖어 서는 안될 것이다.

□...1975년부터 「충현」지가 월간으로 바뀌게 되어 오랜 소망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어떻게 알찬 내용으로 채워야 할지 두 어깨가 무겁기만 하다.

□...손이 부족합니다. 무 다리가 휘청이도록 빨리 환영도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야만 하는 직업(?)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처럼 뚝뚝하고 정문으로 들어오셨다가는 열문으로 살짝 빠져버리시니.....

△ 사 령(辭令) △

명, 「충현」지 편집위원

정 관 일 김 길 자

구 명 신

면, 「충현」지 기자

정 관 호 신 제 원

김 회 숙

1975년 1월 1일 부

★ 원 고 모 집 ★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충현」지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 다 음 —

종류: 신앙간증, 수필, 시, 성도의 교제나 교회 발전을 위한 제언 등.

매수: 200자 원고지 8매 정도.

기간: 수시.

제출할곳: 「충현」투고함이나 교회 사무실.

※ 주의-한글로 쓰시되 외국어를 필요로 할 때는 괄호 안에 써 넣으십시오.